

“하늘색을 돌려주세요”

광주시, 21일 제48주년 지구의 날 행사 개최

금남로 일원...전시·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제48주년 지구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21일 금남로 일원에서 기념식과 다양한 시민참여형 행사로 열린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70년 4월22일 시작된 민간주도의 세계 기념일이다. 광주시는 1990년 무등산에서 지구의 날 선언을 시작으로 해마다 4월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 지구의 날 행사 슬로건은 ‘하늘색을 돌려주세요’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에 대

한 경각심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맑은 하늘을 물려주기 위한 실천 방법 등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25개 환경단체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며 2018 지구의 날 광주행사위원회가 주최한다. 올해 주관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맡았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자동차를 제외한 자전거, 인라인 보드 등의 행진으로 행사를 시작한다.

제48주년 지구의 날 주(主) 주제인 미세먼지 관련 전시물 설치 및 산소방 꾸미기 등을 준비했다. 화분, 공기청정기 등을 활용해 산소방

을 만들고 공기질측정기로 산소방 안과 밖의 상황을 체험할 수 있게 해 도시환경 공기 개선을 위한 시민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817기복관 일대에서는 태양광기트, 한궁 등 놀이마당을 진행하며, 전기자동차, 미니태양광발전소 등 전시마당도 펼쳐진다.

또한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을 하늘, 강과 바다, 땅, 공간 4가지 주제로 나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단순 체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1회용품 안 쓰기 및 건강한 먹거리, 도시농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기후와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실시

광주시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까지 기준중위소득 80%이하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했다.

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도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만 대상에 해당했지만, 올해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227명보다 500여 명 늘어난 2750여 명이 사업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광주시는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 셋째아 가정까지 완화

초과하더라도 회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는 예외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5~15일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및 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수유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기간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복 시 건강정책과장은 “지원대상 확대를 저출산 시대에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동구, 아시아 푸드 페스티벌 개최

광주 동구가 오는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구시정 일원에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 맛에 빠지고 아시아의 맛에 젖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남도의 전통음식과 다양한 아시아음식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오후 5시 요리연구가 ‘빅마마’ 이해정의 ‘푸드 토크’를 시작으로 ▲저녁 7시 오픈링 행사, 중국 전통 태극부채춤 공연 등 개막식 ▲전자 현악팀 및 DJ존지의 EDM 디제잉 등 축하공연 ▲푸드 관련 강의 및 레시피를 소개하는 ‘줍미들의 식탁’ ▲거리에 고급레스토랑을 설치하는 ‘로드 레스토랑’ ▲식재료 장터 ‘아시아 마켓’ ▲아시아 야시장 이미지를 연출하는 ‘골목 in 아시아’ 등이 진행된다.

서구, 어린이 생활민방위 체험교육 이용하세요

광주 서구가 서구청 지하층 민방위 안전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기 및 지진발생시 대피하는 법, 심폐소생술, 소화기 작동 방법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아이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처치요령과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등 안전관련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그동안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교육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 안전띠 미착용 위험 체험, 자전거타기 등 시뮬레이션 체험을 통해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9종의 재난 대처방법이 준비되어 있다.

남구, 11월까지 지적 기준점 일제조사 실시

광주 남구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지 경계 분쟁 예방을 통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에 있는 지적 기준점 표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지적 기준점 표지 일제 조사는 11월까지 7개월여에 걸쳐 진행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 기준점은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표식으로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기준점을 토대로 별도로 지정된 측량 기준점을 말한다. 현재 남구 관내에는 지적 삼각점 4곳과 지적 삼각보조점 42곳, 지적 도근점 1,412곳 등 총 1,458곳에 지적 기준점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구,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지원

광주 북구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2018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지난 6일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39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며, 총 사업비 8억 4천만원을 투입해 아파트 단지별 시설개선 사업비 규모에 따라 사업비의 80%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1997.12.13. 이전 준공)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85㎡ 이하세대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임대 및 사원아파트 제외), 다음달 18일까지 북구청 공동주택과로 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및 동장사본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광주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가 지난 17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2018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또 조만간 발표할 노사상생선언문에 화합과 배려의 노사문화 정착, 고용 개선 등을 담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최재 임금 준수, 임금 체불 예방, 근로계약 체결과 같은 3대 기초 고용질서 확립과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임형택 기자

중기부 광주·전남청, 일자리창출 유공자 격려 자리 마련

일자리창출 업무유공자 포상 수여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18일 소상공인·영세기업에게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고용창출의 주역이자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원기관 실무직원 등이 주요 대상이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에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포함한 고용창출에 기여한 1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기중앙회 회장단과의 오찬간담회식당주인으로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접하게 된 백연미가 오방개 대표는 “정장님의 즉각적인 안내로 전직원(6명)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으며, 주변 음식점에도 권유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형 광주·전남청장은 “아직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이 주변에는 많으니, 지금이라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서은홍 기자

“제12회 오월어머니상 추천하세요”

오월어머니집, 오는 30일까지 방문 접수

사단법인 오월어머니집은 오는 30일까지 제12회 오월어머니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오월어머니상은 5월 정신의 계승 발전과 사회화합을 위해 제정했으며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현신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추천 희망자는 4월18일부터 30일까지 오월어머니집(062-227-0518)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오월어머니집은 오는 5월8일 후보자를 발표한 뒤 12일 시상식을 가

질 예정이다.

대상 1개 단체에는 300만원, 개인 2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해 제11회 오월어머니상은 박석연 코스모스 극단 대표와 현트리(이철선) 목사가 받았다.

또 단체상은 5·18을 마당극으로 만들어 일반과 동포 사회에 진실을 알린 ‘히가시쿠조 마당 축제’가 수상했다.

조인호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해남·나주·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8년 1044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김종범 (1953. 01. 29생)
최후주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오거리길 5-5

위 망 김종범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인 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재판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 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8년 4월 19일
공고인 : 윤전복, 김하림, 김효린
주 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오거리길 5-5
한정승인수리일 : 2018년 4월 13일
공고기간 : 2018. 4. 19~ 2018. 6. 20

한정승인공고

사건 번호 : 광주가정법원 2018년 3147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박소균(570807-1552321)
최후주소 : 광주 남구 진다리로40번길 13-1 (백운동)

위 망 박소균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인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재판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 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8년 4월 19일
공고인 : 박소연
주 소 : 광주 남구 진다리로40번길 13-1 (백운동)
한정승인수리일 : 2018년 4월 18일
공고기간 : 2018. 4. 19~ 2018. 6. 20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리
▶지정·건설 폐기물 처 ▶석면 해체공사

측량>>토목설계>>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